



한 해의 삶을 끝내는 마음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2022, 임인(壬寅)년 한해가 끝나는 12월이 저물어 가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번져 수많은 인명 피해를 주고 있지만, 임인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전임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2022년 3월 9일 실시되었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5월 10일에 취임하여 2027년 5월 9일까지 임기 5년의 대통령을 하게 되었다. 전국 제8기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6월 3일에 실시했으며 7월 1일부터 선출된 지자체 단체장이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삶이 위축되고 만남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5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지난날의 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추억 속으로 아쉬움을 남기고 사라졌다.

살의 시작은 출생이고 끝은 죽음이다. 살아 있는 생물들은 시한부로 살다가 끝을 맺는다.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다 죽지만 하루 동안이 일생이고 하루 일생에 할 일은 다 마치고 죽으면서 종족 보존에 대한 일도 마치고 하루 일생에 할 일을 반성하면서 생을 마친다.

식물도 한해살이 1년 초 식물이 있으며 한 해 동안 시한부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종족 보존에 대한 일을 마치고 끝을 맺는 식물이 있고, 다년생 식물은 여러 해를 살면서 열매를 맺고 종족을 보존하면서 살지만, 다년생식물의 끝은 예측할 수 없이 한 해를 보내면서 사는 것이다.

동물들은 여러해살이 생물이 많으며 사람도 여러해살이 동물 중의 하나다. 한 해를 보내면 또 한 해를 맞이하고 더욱 바람직한 변화를 하면서 살다가 불확실한 삶의 미래 시점에서 끝을 맺는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다. 한해살이 생물들은 1년 안에 삶이 끝난다. 여러해살이 생물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맞이하면서 산다.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새로운 한해살이 삶을 하려고 맞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해를 끝내는 12월은 짧은 한 생을 마감 짓는다

한 해의 삶을 마치고 빈손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끝맺음한다

고 할 때 할 일이 많다. 첫째는 1년 동안 남에게 갚을 빚이 있다면 용서로 빚 갚음을 받아야 하고, 내가 못 받은 빚이 있다면 용서로 빚 갚음을 주고 마음속에 화해와 용서로 빚 갚음을 끝내야 한다. 다음은 빈손이 되려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하는데, 물적인 것은 요구하는 사람을 찾아 주면서 버려야 하고, 1년 동안의 생을 돌이켜 보고 정신적인 면에서 버려야 할 것을 찾아 버려야 한다.

세상을 보는 부정적 생각을 버려야 하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생각을 버려야 하고, 일을 미루고 남에게 의지하려 했던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 해의 삶을 마치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지만 내 마음의 큰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한 해를 마쳐야 한다.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소식이 끊겼던 친지들에게 감사의 편지와 전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12월을 보낸 감사의 달이라고 한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은혜, 이웃과 친지들로부터 은혜, 국가로부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보답에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심적으로라도 보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한 해를 보내야 한다.

내가 빈손이라 생각할 때 지나친 과거의 욕심은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느끼면서 가진 것을 요구하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끝맺음이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끝맺음은 정리 정돈이다. 정리 정돈이란 질서를 찾아 정리하는 것인데 있어야 할 것들의 제자리 찾기와, 있어야 할 물건들의 제자리 찾기와, 한 해 동안 사용했던 물건들은 최적의 장소에 정리하고, 1년 동안 일기를 비롯한 기록물이 있다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리해서 보관한 나의 기록물이 되게 해야 한다.

한 해의 끝은 나를 빈손으로 만들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되어야 하며 가진 것을 베푸는 끝맺음이 되어야 하고 화해와 용서의 끝맺음이 되어야 한다. 인생의 삶에서 시작과 끝은 타원형 트랙을 달리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이어져 있다. 임인년 한 해를 보람 있는 끝맺음을 하여, 계묘(癸卯)년 새해의 활기찬 출발 신호를 받아 달릴 수 있게 했으면 한다.

칼럼

안전한 지역 축제·행사는 이렇게 이루어 져야

기고

정진호 강진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2022년은 코로나19, 재우행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 속에 그간 억누르고 있던 지역 축제나 공연 및 각종 행사가 팬데믹 시간 이전으로 복귀된 만큼 각종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중이 운집하는 지역 축제나 행사는 한껏 고조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다양한 변수에 의한 돌발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태원 헬로윈 축제의 안전관리 부실대응 등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각종 축제나 행사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다시 한번 깊은 과거를 되짚어 보고 미래를 위한 반성과 대안 제시를 위한 생각을 다듬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게 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는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다양한 정부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 협력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헬로윈 축제 사고에서 보듯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있어 시급히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국민들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매주 여러 건의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우리 강진군 내에서도 강진만 축추는 갈대 축제 등 각종 한마음 축제나 송년의 밤 행사 같은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연말 해넘이와 신년 타종식과 해맞이 행사가 개최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교통 및 군민들의 안전사고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의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경찰에서는 다중이 운집하는 지역 축제나 행사장 현장에 진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추월 추과 관계 공무원 및 행사 대행사에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안전관리 위원회를 통해 요청하고, 안전요원 배치 등 구체적 보완 사항을 알리는 등 의견을 개진하여 오고 있다.

다행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에는 지역마다 시·도·군·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둬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수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행사의 주체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국민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에 발 빠른 대응과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행동 매뉴얼을 제작 행사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전에 밀집 지역을 파악해 우회하는 등 축제와 행사 등에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들어가지 않기,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휴대 폰을 보며 걷지 않기, 지나치게 사람이 많은 곳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조심하기, 다른 사람이 닿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 상황일 경우 바로 자리를 벗어나기, 질서위험이 있을 경우 팔짱을 끼서 숨 쉴 공간 확보하기, 전막이나 부스를 고정하는 줄에 몸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등 각종 축제·행사에 대해 단계별, 유형별로 행동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안내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새해에는 각종 축제·행사·공연·체육경기 등에 있어서 사전 철저한 계획과 관리로 국민모두가 안전에 공감하도록 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소원해 본다.

기고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진화하는 피싱 사기

김태경 나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경장



과거 피싱 범죄라고 하면 어눌한 말투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속여 말하는 조선포를 떠올린다. 그러나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생활 방식 영역의 점차 확장됨에 따라 이로 인해 피싱의 범죄 수법도 비대면 대환대출, SNS 및 메신저를 통한 지인 사칭, 수익률 높은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최근 나주경찰서에 접수된 피싱 범죄의 형태를 보면 피싱 범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신 내용을 가로채거나 심박스(SIM Box)등을 이용하여 변조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가로채는 형태로 나타난다.

과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속여 말하며 입금을 유도하고 ATM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던 방식과 달리 일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되면 피싱 범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다. 피싱범들은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보증을 해약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발생한 피해금을 이체하는 등 범행에 피해자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피싱 범죄로 인해 발생한 누적 피해금은 3조8,681억으로, 1건당 피해 금액은 2019년 1,699만 원에서 2021년 2,5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피싱 범죄에 빈번하게 악용되는 국제전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안내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번호 변조 중계기(SIM Box)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하는 등 범죄 수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며, 경찰청에서는 불법 어플 탐지 ‘시티즌 코난’이라는 어플을 개발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추적·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첫째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현금 전달이나, 상품권의 결제를 요구하지 않고, 둘째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고수의 투자, 서민 대상 대출 등 광고에 유의하고, 셋째 출처가 불분명한 URL(인터넷상의 파일 주소)을 통한 어플 설치에 대해서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인으로 속여 말하며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싱 범죄의 특성상 발생한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범죄 예방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영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만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를 위해 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